



올 한해는 참 바쁘게 지내온 것 같다. 2008년도 AI발생으로 인하여 오리산업 전체가 위기에 처하였으나 협회와 업계 종사자들의 부단한 노력과 홍보, 캠페인 등으로 소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오리고기 소비촉진에 힘써주었으며, 그로인하여 각 업체들이 작년도 AI 여파로 입식량을 줄여 생산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소비로 여름철 한때는 공급물량이 부족한 상

황도 발생하기까지 했다. 이후 업체들은 꾸준히 입식량을 늘려나가며 오리고기 공급을 원활히 하여 오리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타 축종의 사료가격은 내리면서 오리 사료의 가격은 인하하지 않는 등 사료업체들의 횡포로 사육비를 절감할 수 없어 업체나 농가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한 해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소비 확대로 오리산업은 꾸준히 25%의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2008년도 농업생산액은 1조원을 넘어서며 계란과 대등할 정도로 성장하여 축산업의 한축으로서 당당히 자리 잡았다.

또한 이러한 오리고기 강세가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바이다.

이를 위해 원산지 표기 의무화를 통해 하루 빨리 시행하여 국내산과 수입산을 차별화 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우리 오리고기' 라는 신뢰와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오리농가와 각 업체들 및 종사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AI 차단방역에 노력을 기울이며 방역 프로그램을 연중 가동하여 소비자들에 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

